

중국 물류 리포트

CHINA LOGISTICS REPOR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國 上海市 長寧區 遵義路 100號 虹橋上海城 A-1803

Tel. +86-21-6090-0395~6, Fax. +86-21-6090-0397

제13-7호

2013년 7월 17일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3년 상반기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 전문가 칼럼

: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발전과
물류업 진출 러시

▶ 중국 물류 동향

■ 2013년 상반기 주요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만 TEU, %)

	항만	물동량	증가율
1	상하이항	1,633.50	2.8
2	선전항	1,103.52	1.5
3	닝보-저우산항	850.54	6.3
4	칭다오항	800.15	10.4
5	광저우항	712.64	1.5
6	톈진항	650.60	11.0
7	다롄항	446.71	23.3
8	샤먼항	373.60	16.4
9	렌윈강항	270.90	11.0
10	잉커우항	268.49	9.8
	합 계	7,110.65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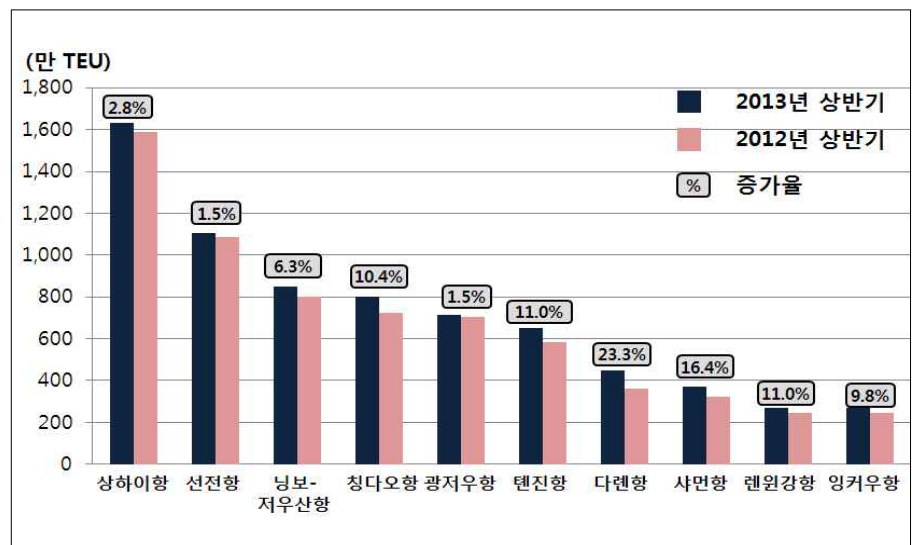
■ 2013년 상반기 주요 항만 전체 화물 물동량 (억 톤, %)

	항만	물동량	증가율
1	닝보-저우산항	4.05	7.6
2	상하이항	3.39	6.2
3	톈진항	2.50	8.1
4	칭다오항	2.30	11.3
5	광저우항	2.20	4.0
6	탕산항	2.12	22.5
7	다롄항	2.07	11.6
8	잉커우항	1.66	10.7
9	르짜오항	1.59	10.5
10	친황다오항	1.35	-2.0
	합 계	23.23	8.7

중국물류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원을
'KMI 중국물류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KMI All Rights Reserved.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3년 상반기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주 : ① 상기 순서는 연해항만 기준 ; ② 증가율은 2012년 해당 월 데이터 기준으로 계산하여 일부
항만의 경우 금번 교통운수부 발표와 상이.
자료 : 교통운수부(www.moc.gov.cn) ; KMI 작성.

2013년 상반기 중국 상반기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9,147만 TEU

2013년 상반기 중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대비 8.3% 증가한 (2012년 상반기 증가율 8.8%) 9,146.6만 TEU를 기록했다. 항만별로는 상하이항이 동기대비 2.8% 증가한 1,633.5만 TEU로 가장 높았으며, 선전항 1,103.5만 TEU, 닝보-저우산항 850.54만 TEU, 칭다오항 800.15만 TEU, 광저우항 712.64만 TEU의 순이었다. 상위 5대 항만 가운데 광저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6.5%p, 닝보-저우산항 -5.4%p 하락하는 등 칭다오항(전년 동기과 동일)을 제외한 항만들의 증가율은 모두 전년대비 하락했다.

2013년 상반기 중국 연해 주요항만 중, 다롄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동기대비 23.3%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롄항은 2011년 '컨테이너 물동량 3년 내 1,000만 TEU 달성' 목표를 제시한 이후, 컨테이너 물동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2012년 증가율 26%), 올해 1,000만 TEU 달성이 예상된다. 또한 샤먼항 역시 '샤먼동남국제항운중심' 건설의 정책 조치로 인해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동기대비 16.4% 증가했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3년 상반기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 ▶ 전문가 칼럼
: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발전과 물류업 진출 러시
- ▶ 중국 물류 동향

저자 소개

거웨이민(葛伟民) 상해사회과학원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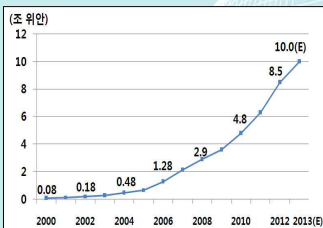
연구 분야

정보 경제학, 생물 경제학, 물류산업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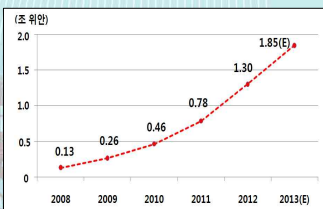
상해사회과학원 신흥산업연구실 주임,
상해시물류학회 부회장,
상해상업발전연구원 수석연구원,
중국정보경제학회 상무이사 등

■ 중국 전자상거래 교역액 추이



자료 : 칼럼 본문.

■ 중국 B2C 교역액 추이



자료 : 칼럼 본문.

전문가 칼럼 :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발전과 물류업 진출 러시

1. 전자상거래 시장경쟁 관건은 물류

중국 전자상거래 교역규모는 2000년 800만 위안에 불과했으나, 2012년 8.5조 위안으로 급증했고, 2013년 10.6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2년 B2C 교역액의 사회전체소매소비액(社会商品零售总额) 비중은 6.2%에 달했으며, 2015년 1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중국이 빠르고, 저렴한 물류·택배시스템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미국의 전자상거래(온라인 소매)의 사회전체소매소비액 비중은 6%가 약간 넘어 중국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전자상거래 배송은 2~3주가 소요되는데 반해, 중국은 현재 2~3일 만에 배송되며, 1일 배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같은 대도시의 경우 이미 1일 2~3회 배송을 실현하는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나타났다(일례로 징둥상청[京东商城]의 경우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배송이 완료된다).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빠른 배송을 실현하려면, 3자 물류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일부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자체 물류시스템 구축, 물류업으로 영역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물류업으로 진출 러시, 아직 물류 현대화 실현 못해

2011년부터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대대적으로 자체 물류센터 구축을 시작했다. 징둥상청이 35억 위안을 투자해 상하이에 건설한 물류센터 ‘아시아 1호(亚洲一号)’가 2013년 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쑤닝원상(苏宁云商, 이하 ‘쑤닝’)도 2015년까지 200억 위안을 투자하여 중국 전역에 12개 지역자동화분류센터 및 60개 배송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신왕(易迅网) 역시 2013년 중국 전역에 10여 개의 보관·배송센터를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쑤닝의 경우 이미 중국 전역을 커버하는 창고·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이다. 쑤닝은 베이징, 선양, 톈진, 난징 등 11개 도시에 물류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하얼빈, 칭다오, 광저우, 샤먼 등 16개 도시에 물류기지를 건설 중이다. 그 밖에 베이징, 선양, 청두, 광저우, 우한 등지에 소화물 자동분류창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소화물 저장공간을 확충하고, 배송 능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또한 배송측면에서도 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철도, 항공을 보조로 하는 간선운송 노선을 구축하고, 1,600km 24시간 배송을 실현할 계획이다. 쑤닝은 현재 베이징, 상하이, 장쑤성 등 11개 성·시에서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획득한 상태이다.

그 밖에도 쑤닝은 중국 전역에 10~12개의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데이터센터를 건설하여 파트너 업체 및 소비자들에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¹⁾.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3년 상반기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 ▶ 전문가 칼럼
: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발전과
물류업 진출 러시
- ▶ 중국 물류 동향

지수 동향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07-05	07-12
종합지수	1,034.91	1,046.70
일본 항로	734.65	730.55
구주 항로	1,130.21	1,195.23
미서부 항로	1,082.94	1,084.06
미동부 항로	1,209.53	1,204.77
한국 항로	579.11	564.54

자료 : 상하이 항운교역소.

CHINA COASTAL BULK
FREIGHT INDEX

	07-05	07-12
종합지수	969.82	966.61
석탄	1,019.29	1,015.15
곡물	665.54	650.26
금속광석	858.59	858.59
정유	1,223.72	1,223.72
원유	1,597.14	1,597.14

자료 : 상하이 항운교역소.

외자기업들도 역시 중국 물류업 진출에 앞장서고 있다. 2012년 10월, 세계 최대의 산업용 부동산기업 중 하나인 호주 굿맨그룹(Goodman Group)의 ‘굿맨푸 동공항 물류센터’가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굿맨그룹은 향후 3~5년 간 중국 투자금액을 19억 위안에서 190억 위안으로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글로벌 물류부동산기업 프로로직스(ProLogis) 역시 2003년 중국에 진출한 이후 급진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프로로직스는 현재 중국 29개 도시 103개 물류원구에 투자 및 건설·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총 임대 면적은 1,150만 m²에 달하며, 중국의 주요 공항, 항만, 고속도로, 가공기지 및 소비시장을 연계하는 물류·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밖에도 싱가포르의 부동산기업 메이플트리(Mapletree), 아센다스(ascendas) 등도 중국내 하이엔드 물류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에 적극적이다.

하이엔드 물류창고의 임대료 연투자회수율은 통상 10%정도에 달해, 공장 및 일반창고보다 훨씬 높으며, 주택 및 상가 투자회수율보다도 높은 편이다. 비록 자산의 상승가치 측면에서는 주택 및 상가보다는 높지 않겠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수요에 적합하다. “중국은 현대화된 물류부동산 공급이 매우 결핍되어 있다”는 굿맨그룹 대중화권 총경리 필립 피어스(Philip Pearce)의 주장처럼, 중국의 5.5억 m²에 달하는 창고 총면적에서, 580만 m² 정도만 현대화된 물류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며, 물류자산의 가치 및 임대료 상승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3. 마윈의 ‘차이우왕(菜鸟网)’, ‘중국 스마트물류 네트워크’ 구축 계획

중국 B2C 시장에서 알리바바 그룹(阿里巴巴集团, 회장 마윈[马云])의 타오바오(淘宝)와 Tmall(天猫)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다. 타오바오와 Tmall의 2012년 1~11월 거래액은 1조 위안을 기록했으며, 2012년 타오바오의 ‘싱글데이(11월 11일)’ 판촉행사때는 주문폭주로 인해 지불시스템이 마비되고, 택배회사들은 며칠 간 ‘창고폭발(爆仓)’ 현상을 겪기도 했다. 타오바오는 향후 5~10년 내 연간 매출액 10조 위안 달성을 목표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전자상거래 총 매출액도 20억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곧 1일 2억 건의 택배 물량 발생을 의미하며, 현재 중국의 물류시스템 발전 추세로는 분명히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중국은 통일된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3년 5월 28일, 알리바바 그룹, 인타이(银泰) 그룹, 렌허푸싱(联合复星)그룹, 푸춘(富春)그룹, 중국우정그룹(中国邮政), 순펑(顺丰)그룹과 선통(申通)·웬통(圆通)·중통(中通)·윈다(韵达)택배가 공동으로 ‘차이우왕 과기유한공사(菜鸟网络科技有限公司, 이하 ‘차이우왕’)'를 광둥성 선전에 설립했으며, ‘중국 스마트물류 네트워크(CNS: China SmartLogistic Network)’ 프로젝트의 시작을 선포했다.

1) 인터넷 기반(Cloud)의 컴퓨터기술(Computing)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각종 정보통신 기기로 데이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용 시스템. Google Docs, 네이버 N 드라이브 등이 클라우드 컴퓨팅 사례임, 편집자 주.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3년 상반기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 ▶ 전문가 칼럼
: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발전과
물류업 진출 러시
- ▶ 중국 물류 동향

■ '차이우왕(菜鸟网)' 지분 구조 (만 위안, %)

주주 명칭	출자액	비중
상하이옌통자오롱 투자발전그룹 (上海圆通蛟龙投资 发展集团)	5,000	1
순펑쑤원그룹 (顺丰速运集团)	5,000	1
상하이중통지속퍼 (上海中通速递)	5,000	1
상하이윈다화운 (上海韵达货运)	5,000	1
선통택배 (申通快递)	5,000	1
베이징귀진투자 (北京国俊投资)	160,000	32
상하이싱홍투자 (上海星泓投资)	50,000	10
푸춘물류 (富春物流)	50,000	10
쩌장Tmall기술 (浙江天猫技术)	215,000	43
합 계	500,000	100

자료 : 「物流时代」, 2013.07.

마윈 회장은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고, 전국 24시간 내 배송하는 ‘중국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중국을 '8대 군구(八大军区)'로 불리는 8대 물류권역으로 구분하여 이미 각 거점지역의 부지선정 작업에 들어간 상태이다. ‘차이우왕’의 CEO 선귀권(沈国军)은 이미 10여 개 도시에서 창고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베이징, 톈진, 광저우, 우한, 저장성 쩐화(金华), 하이닝(海宁)시 등이 알리바바 그룹과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특히 쩐화시의 쩐이도시신구(金义都市新区)는 ‘알리바바 물류’의 유력한 제 1창업기지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필자는 한 좌담회에서 쩐화시 정부가 알리바바 그룹과 지속 협력할 계획이며, ‘물류도시’ 건설에 지원할 계획도 있다고 들었는데, 인근 도시들의 행보는 중국 최대의 물류중심지로 공개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상하이로서도 하나의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²⁾.

‘차이우왕(菜鸟网)’ 계획에는 향후 3,000억 위안이 투자될 계획이며, 1차 투자금은 1,000억 위안에 달한다. 마윈은 향후 5~8년에 걸쳐 중국 전역에 개방적이고 사회화된 물류인프라를 구축하고, 1일 평균 300억 위안, 연간 10조 위안에 달하는 온라인 매출을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상기의 물류인프라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을 포함한다. 첫째는 중국 전역의 수백 개 도시가 ‘자체물류+협력’의 방식으로 물류창고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창고들의 데이터 응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자상거래 기업, 물류기업, 창고운영기업 및 SCM 서비스기업들이 공유토록 하는 것이다.

마윈은 현재 상기 프로젝트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영기업이 국유기업들이 전담해온 국가 인프라건설 분야에 투자·건설 참여한다는 큰 의의를 두고, 민영기업으로서 시대적, 사회적 소명을 다하길 희망”하고 있다.

4. ‘차이우왕’에 대한 전망

마윈의 ‘차이우왕’ 계획은 큰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많은 지역 정부들은 아직도 전국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당시 항저우(항저우는 알리바바 중국 본사 소재지)에게 선점하도록 한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많은 지역들이 도시화 과정 중 산업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류도시’의 건설은 의심할 바 없는 좋은 방향이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중들이 마윈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민간 경제 능력의 통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일 것이다.

2) 2012년 12월 1일, 쩐화시 정부와 알리바바(중국)는 전략적협력협약(MOU)을 체결하였고, 쩐화시와 이우(义乌市) 중간의 쩐이도시신구에 '중국-쩐이 전자상무신창(中国金义电子商务新城项目)' 건설 프로젝트가 주요 내요임. 상기 프로젝트는 총 면적 1,500묘(약 100만 m²), 총 투자액 150억 위안 계획으로, MOU 체결 후 2년 내에 1기 운영, 5년 내 전 프로젝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동 프로젝트 운영 후 연간 600억 위안 규모의 온라인 거래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며, 운영 10년 후 교역액은 1,000억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칼럼 본문.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3년 상반기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 ▶ 전문가 칼럼
: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발전과
물류업 진출 러시
- ▶ 중국 물류 동향

■ '차이우왕(菜鸟网)'에 대한 업계 평가

긍정론

- 중국 물류업의 집약화 발전에 도움
- 중국 물류업의 노동집약형 모델에서 기술집약형 모델로 전환 추진
- 중국 교통인프라 발전에 영향
- 중국 스마트 물류 및 공급체인, 금융 발전 촉진
- 공급사슬 각 단계 및 각 지역의 경쟁력 있는 협력물류업체들에게 큰 기회 제공

부정론

- 업계경쟁에 악영향, 물류구조의 혼란 및 조정 야기 : 초기 기반을 형성한 대규모 택배기업의 분열 조장
- '차이왕' 참여 택배기업들 알리바바 경쟁 상대들의 배척 우려
- 택배기업들의 발언권 상실, 알리바바에 의한 견제 심화
- '차이우왕' 불참여 기업의 불이익 우려
- 택배기업들의 부가수입(예: 결제대금수령) 상실 우려

자료 : 「物潮时代」, 2013.07.

칼럼 원문

电子商务飞速发展 物流掀起新一轮圈地潮

一、电子商务市场竞争决胜的关键是物流

几年前就有人认为：中国电子商务市场竞争决胜的关键是物流。据有关统计，中国电子商务市场交易规模2000年仅0.08万亿元；2001年至2005年分别为：0.11、0.18、0.28、0.48、0.65万亿元；2006年突破1万亿元，达到1.28万亿元；2007年至2012年分别为：2.12、2.90、3.60、4.80、6.30、8.50万亿元。预计2013年将突破10万亿元，达到10.60万亿元。而其中的B to C部分，历年交易额如下表所示：

年份	2008年	2009年	2010年	2011年	2012年	2013年
金额(亿元)	1281.8	2630.0	4610.0	7846.5	13040.0	18500.0

注：2013年为预测数。

2012年中国电子商务B to C部分占社会商品零售额6.2%，预计2015可超过10%。中国电子商务的飞速发展，原因很多，其中一个重要原因是中国具有快速廉价的物流快递系统。现在美国电子商务(网上零售)占社会零售总额的6%多一点，中国也是6%多一点。这是2012年数据。今后几年就会有很大变化，为什么？因为美国电商物流配送需要2、3周，中国趋势是比2、3天更短，24小时送达是一个目标，但是实际上京、广、沪等大城市已经出现了一天两送、一天三送的电商，京东确实能做到上午订货下午送到。要做到快速送货，仅仅依靠第三方物流是不够的，因此一些电商为了在竞争中取胜，几年前就开始“圈地”建设自身的物流系统。

二、圈地热潮还没有形成物流现代化

自2011年开始，我国电商大肆圈地自建物流中心。2011年京东宣布圈地1400亩落户5城自建大型物流中心，而2013年底京东在上海投资35亿元的物流中心“亚洲一号”将投入使用。苏宁未来三年计划投入200亿元建设物流中心；易迅网2013年也将在全国新建10余个仓储配送基地。

2012年，苏宁已经形成了遍布全国的仓储网络与完善的配送体系。包括在沈阳、北京、天津、南京等11个城市建成物流基地并投入使用，同时哈尔滨、青岛、广州、厦门等16个城市物流基地在建，另15个城市物流基地完成土地签约，其他项目基本落实选址；此外，公司位于北京、沈阳、成都、广州、武汉等地的小件商品自动分拣仓库项目也在加快推进。物流体系结合商品铺货规划，扩建小件商品仓库存储空间，提升小件商品配送能力；结合配送作业模式，自建以公路为主，铁路、航空为辅的干线运输线路，实现1600公里24小时送达的运输时效；并在北京、上海、江苏等11个省市取得了国家快递许可证，提升了自建物流资源使用效率。按规划，苏宁将在2015年前完成60个物流基地的建设，并在全国枢纽地区建设12个全自动化存储和分拣仓库，形成全国协同、立体覆盖的物流网络。此外，苏宁易购将在全国建设10-12个云计算数据中心，形成向合作伙伴、中小企业和消费者提供云服务及系统解决方案的能力。

除了国内电商，外物流集团也是这轮圈地潮中的急先锋。2012年10月底，全球最大的工业地产投资公司之一嘉民集团在中国的旗舰项目——嘉民浦东空港物流中心正式投入运行，其宣布在3~5年内将中国投资额从19亿元增至190亿元人民币。

另一家国际物流地产商普洛斯则显得更为激进。自2003年进入中国以来，普洛斯的版图已经扩张到国内29个重要城市，投资并管理着103个物流园区，可供租赁面积达1150万平方米，基本形成了对中国主要的空港、海港、高速公路、加工基地和消费市场的物流配送网络的覆盖。

此外，丰树、腾飞等新加坡工业地产巨头也同样激进抢夺国内高端物流地产项目的开发和改造，触角深入长三角、珠三角、环渤海以及西南区域。

据了解，高端仓储物业的租金年回报率一般能达到10%左右，远超过普通工业厂房和仓库，也高过持有型的住宅和商业投资回报。虽然在资产升值方面可能不及商业和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3년 상반기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 ▶ 전문가 칼럼
: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발전과
물류업 진출 러시
- ▶ 중국 물류 동향

■ 거웨이민 연구원 Q&A

1.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물류영역 응용 :

- '클라우드 로지스틱스(Cloud logistics)'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과 기술을 물류영역에서 응용, 구현하는 것이다. 당연히 '물류기지'와 같은 하드인프라의 구축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상적인 발전과 함께 건설한 현실적 기반도 중요하다. 현재 물류 일부영역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능력은 응용이 실현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로지스틱스의 실현은 선진국가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중국의 물류 현대화를 위한 제언 (창고업 부문) :

- 기술적인 혁신, 창고의 현대화 뿐만 아니라, 창고업의 체제 개혁, 즉 3자 물류로의 발전이 더욱 필요하다. 기업의 자원이 사회자원으로 전환되어야만, 전체 창고자원들의 효율적인 통합이 가능하다. '개방'은 '개혁'의 전제조건이다.

住宅地产, 但适合长期稳定的投资需求。“中国现代化物流物业供应非常短缺。”嘉民大中华区董事总经理彭菲力称, 在全中国5.5亿平方米的总仓储空间中, 只有580万平方米的物业配有现代化的物流设施, 这也为物流资产的升值和租金的上涨创造了条件。

三、马云“菜鸟网”意图打造“中国智能物流骨干网”启动新一轮圈地

中国B to C电商以淘宝及其天猫所占份额最大。淘宝及其天猫一家截止2012年11月30日的当年交易额达到1万亿元人民币。2012年淘宝“双十一”促销, 曾经引发支付宝网络数小时“瘫痪”和快递公司数天“爆仓”。未来5到10年, 淘宝的目标是做到年10万亿的销售额, 而中国电商的年度总销售额将达到20万亿元, 这就意味着每天会有2亿个包裹。按照目前国内的物流体系发展水平肯定不能支撑。因此中国急需打造一个智能物流骨干体系。

2013年5月28日, 阿里巴巴集团、银泰集团联合复星集团、富春集团、中国邮政集团、中国邮政EMS、顺丰集团、天天、宅急送、三通一达(申通、圆通、中通、韵达), 合作各方共同组建的“菜鸟网络科技有限公司”(以下简称“菜鸟网”)在深圳正式成立。其后共同宣布: “中国智能物流骨干网”项目正式启动。

马云的设想是: 建立一个中国智能物流骨干网, 线上成交, 货物24小时内送达全国各地客户手中。这一设想, 一方面源于竞争方的举措; 另一方面, 天猫超市的实践、“双十一”促销造成物流差点爆仓瘫痪, 也是促成这一设想的重要原因。

据悉, CSN计划已启动各核心关键网络节点的选址工作, 并已与多个省份展开接触和交流。马云将这个全国网络分为“八大军区”, 各地区分步部署, 以北京、深圳为先。据菜鸟网络CEO沈国军透露, 目前同时启动的拿地建仓项目已经包括十几个城市。信息显示, 北京、天津、广州、武汉、金华、海宁等地都传出与阿里巴巴集团合作的消息, 金华的金义都市新区有望成为阿里物流的第一个创业之巢。在最近笔者参加的一次座谈会上, 内部人士透露: 金华市政府打算继续跟马云合作, 有可能在共建物流城镇方面给予更大的支持。这些对上海这个号称要建设全国最大物流中心的城市来说无疑是一个挑战, 上海面临又一次抉择。

按照“菜鸟网”的整体计划, 未来共投资3000亿元人民币, 首期计划投资1000亿元。“我们希望用这3000亿元来撬动国家在物流基础设施上投入的几十万亿元, 让国家基础设施发挥出更大效应。”马云的野心很大, 他希望用5-8年的时间, 努力打造遍布全国的开放式、社会化的物流基础设施, 建立一张能支撑日均300亿元、年度约10万亿元的网络零售额的智能骨干网络。

这些基础设施主要包括两部分: 一是全国几百个城市通过“自建+合作”的方式建设物理层面的仓储设施; 二是利用物联网、云计算技术建立基于这些仓储设施的数据应用平台, 并共享给电商企业、物流公司、仓储企业、第三方物流服务商和供应链服务商。

马云对这个项目充满了信心, “是划时代意义的, 万一被我们搞成了, 我觉得今生无悔, 终于作为民营企业参与国家基础设施的投资和建设。一直以来基础设施是国有企业做, 今天我们这些民营企业联合起来希望为这个时代、为这个社会做, 而且, 这是为一个时代在做。”

四、预期和展望

1. 云物流是云计算理念和技术在物流领域的体现和应用。云物流概念如果得到正确理解, 圈地潮可以不用那么火热, 而闲置的云计算能力可以得到部分应用。当然, 该建的“物流城”还是要建。既要“腾云驾雾”, 也要“脚踏实地”。

2. 云物流的实现, 需要借鉴先进国家的经验, 不仅仅需要技术上的改造, 不仅仅需要仓储的现代化, 更需要仓储业的体制变革——向第三方物流方向发展, 由企业资源变为社会资源, 整个仓储资源才能得到更有效整合。开放是改革的前提。

3. 马云“菜鸟网”计划具有极大的号召力, 各地政府记忆犹新的是当年错失成为全国电子商务中心的机会, 让杭州占了先机。同时, 不少地方搞“城镇化”缺少产业支撑基础, 建设“物流城”无疑是一个很好的方向。更重要的是: 人们看好马云、看好民营经济的整合能力。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2013년 상반기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 전문가 칼럼

: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발전과
물류업 진출 러시

▶ 중국 물류 동향

중국 물류 동향

경제 · 정책

- 국무원, ‘상하이 자유무역실험구’ 승인
- 국무원, 국가해양국 조직 및 인사 개편 방안
확정 발표
- 세계 최장 다렌-엔타이 해저터널, 8월달
국무원 보고 계획
- 중국 새로운 ‘도시화 계획’ 현재 제정 중,
올해 내 발표 전망
- 6월 중국 제조업 PMI 지수 50.1%, 전월대비
0.7%p 하락
- 중국, 미국일본에 이은 세계 3위 해외투자국
- ‘텐진 자유무역지역’ 방안, 국무원 보고
- 중국 상반기 수출입총액, 전년 동기대비
8.6% 증가
- 중국-중동-유럽, 물류·금융·관광 등 25개
프로젝트 협력 체결
- 중국 농업부, 해양어업 발전 실시의견 발표

해운 · 항만

- 장강하구 12.5m 심수항로, 타이창(太倉)까지 정식 개통
- 중국 항운발전 관련 지도의견, 하반기 국무원 정식 보고 전망
- 중국 최초 ‘항운서비스업협회’, 칭다오에 설립
- 중국 18개 연해운송 선사, 장기운임협상 주장
- 제 4회 중국국제항운문화제 상하이에서 개최, 「항운문화건설 홍커우(虹口)선언」 발표

- 닙보항, Sea&rail 연계운송 발전 가속화
- 장쑤성, 항만사용료 0.25위안/DWT로 대폭 인하 계획
- COSCO 을 상반기 7,802.3만 위안 손실, 전년동기 대비 약 3배
- 텐진세관, 새로운 수출 LCL 화물 통관 방식으로 통관시간 단축
- 올 상반기 중국 선사 약 60% 적자, 항만 기업 97% 흑자

종합 물류

- 중국 국가우정국-상하이시정부, ‘상하이 택배 헤드쿼터경제 건설’ 공동 추진
- 중국 물류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 계획
- 중국, 월드체인물류원구 건설 과잉 현상 감지
- DHL, 중국~러시아 육로운송 노선 개통
- 중국 택배기업의 현황, ‘고비용, 저이윤’
- Fedex 베이징공항 화물터미널, 약 3배 확장
- 난징시, 총 투자 100억 위안 규모 물류 프로젝트 착공
- 중·일 합자기업 중잉베이성(中盈北兴) 월드체인물류, 다렌 입주
- 올 상반기 택배 영업수입, 전체 우정업의 52% 차지
- 중국 주요 물류기업들, 안후이성 우후(芜湖)시에서 연도 업무회의 개최



자세한 동향 내용은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중국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kmishanghai.org>)
(동향 분석) → 〈주요 뉴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파란색 부분은 번역된 기사임.